

# 종기 치료의 최고 권위자 백광현

## 마의에서 어의로

조선 후기 치종치료로 이름을 날린 침의가 백광현이다. 그는 원래 말의 병을 고치는 마의(馬醫)였다. 그 역시 전통적인 의원이 아니었던 셈이다. 말의 병을 고치던 그가 사람의 종기까지도 고쳐 기이한 효험을 보게 되자 드디어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으로 전업을 하였다. 백광현은 침을 써서 절개해 독을 제거하고 뿌리까지 뽑았다.

정래교(鄭來僑)의 백태의전(白太醫傳)을 보면 백광현은 종기 치료사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래교는 “종기를 절개해 치료하는 방법은 백태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태의는 곧 어의다. 민간 침의였던 백광현은 의과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그 실력으로 내의원에 배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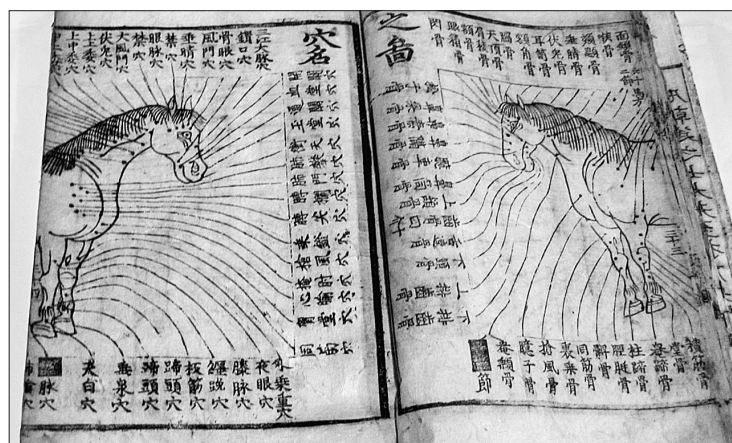
1670년(현종 11년) 8월16일 실록에 “왕의 병환이 회복되자 백광현에게 가자(加資)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광현이 미천한 출

신이고 또 글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별안간 그를 벼슬에 임명하여 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는 1691년 지중추부사, 1692년 승록대부로 승진했는데 실제 직책이 없는 벼슬이나 품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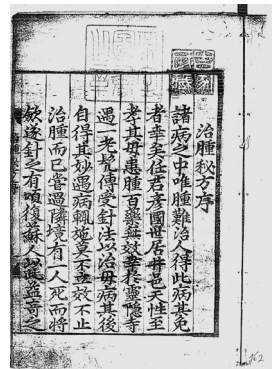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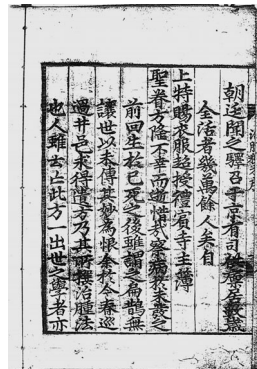
백광현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당시 재상을 치료하던 기록이 실록에 실려 있다. 각기병을 앓는 영돈녕부사 윤지완에게 왕이 백광현을 보냈는데, 사관은 “백광현이 종기를 잘 치료하여 기이한 효험이 많이 있으니, 세상에서 신의

라 일컬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됨이 순박하고 조심스러웠다. 자기 동네에서도 너무 진실해 보여서 마치 바보 같았다고 한다. 키가 큰 데다 수염이 길었으며, 눈에 번쩍번쩍 빛이 났다. 그는 병자들이 모여들수록 의술 베풀기를 좋아해, 더욱 힘쓰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몸을 사리지 않았으며, 돈을 밝히지도 않았다. 그가 백성들에게 ‘신의’로 추앙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말의 혈자리를 표시한 「마의방」



임언국의 치종비방

## ‘동방의술’ 정통 맥 침구경험방이 있다!

### 돌침 종기치료술 임언국 ‘치종비방’ 전승 치종교수 허임 계승… 제자들도 이어받아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치종 치료에서 시작한 조선의술의 정통 맥을 잇고 있다. 허임도 임진왜란 때 치종교수로 활동했고, 허임의 침법을 계승하여 침구술의 명의로 알려진 오정화 최윤택 등의 후예들도 치종교수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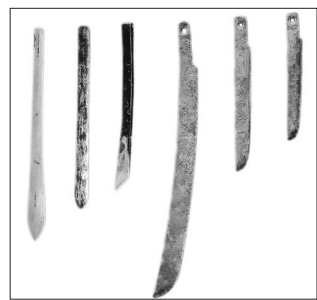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도 종기가 대단히 성행했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종기치료를 잘 하는 사람이 명의로 알려졌다.

『경국대전』을 보면 의서에 능하지 않더라도 종기를 잘 치료하거나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가진 자들을 특별히 채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치종의(治腫醫) 제도를 마련한 최초의 법전 규정이었다. 치종의(治腫醫)는 전의감과 헤민서에 소속되어 있었다. 치종의 가운데 한 명은 치종교수(治腫敎授) 직을 담당했다.

1595년 허임은 ‘치종교수’로 불리었다. 종기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종의였다는 이야기다. 그가 저술한 침구경험방에도 창종부분이 전체 임상각론 중에서 약 20%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량을 배정, 비중 있게 취급하고 있다.

치종분야에서 허임이 참고한 의서는 조선전기 임언국의 『치종비방』과 같은 의서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임언국은 조선시대 치종학의 대표 주자였다. 중종 대에서 명종 대에 걸쳐 종기치료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임언국의 치종술은 효심에서 비롯되었다. 효성스러웠던 임언국은 어머니가 종기를 앓아 백악이 무효하자 영은사라는 절의 노 스님에게 침술을



고려시대 수술용 칼



침의들이 사용하던 침

배워 어머니의 질병을 고쳤다. 그 후로 스스로 독학을 해서 종기 이외에 다른 질병들도 치료하는데 힘썼다. 이런 일화도 있다. 어느날 이웃을 지나는데 사람이 죽어 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임언국이 침을 놓아 소생시키기도 했다.

허임도 스스로 부모의 병 때문에 의원집에서 일하며 의술을 터득했다고 밝히고 있다. 효심이 계기가 되어 의술을 접하게 된 점도 임언국과 허임은 유사하다. 허임은 20대에 이미 치종교수였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에는 ‘창종’ 부분에서 생사를 다투는 종기치료법이 묘사되고 있다.

허임 침구술은 고대 조선에서 편석으로 웅양을 치료하던 선사시대에서부터 임언국의 치종비방을 거쳐 온 정통 조선의술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 조선 명의 탐구

# 낮은 곳의 ‘신의’ 침은 조광일

조광일은 제대로 된 의원 가문에서 자랐거나 의서를 광범위하게 본 의원이 아니었다. 또한 전해오는 처방을 따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살려낸 사람이 수 천 명에 이르렀다. 조선의 문호 홍양호의 문집 이계집에 실린 침은(鍼隱) 조생광일전(趙生光一傳)에서 어진 인품을 가진 그를 만날 수 있다.

조생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다른 재주는 없고 침술로 이름이 있어 자기 호를 침은(鍼隱)이라고 하였다. 충청도 당진 합덕의 저수지 근처에 살던 그는 늘 주머니 속에 구리침, 쇠침 열

개를 넣고 다녔다. 그는 침으로 약창을 터뜨리고 상처를 치료하였으며 어혈을 풀고 풍기(風氣)를 틔우고 절름발이와 곱추를 일으켜 세웠는데, 즉시 효험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명성에도 그는 거만하지 않고 사람됨이 소탈하고 곧 아남을 거스르는 것이 없었다.

홍양호가 어느날 조생에게 물었다.

“의술이란 천한 기술이고 시

집이 아니면 부잣집입니다. 만약 가난하고 권세 없는 집이면 백번을 청해도 한번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어진 사람의 인정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무리들은 싫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제가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직 시정의 궁한 백성일 뿐입니다. 제가 침통을 쥐고 사람들 속에 돌아다니는 지 10

## 의술은 높이 명성을 구하지 않아

정은 주접스러운 곳이다. 그대의 재주로 어찌 귀하고 현달한 사람들과 사귀어 명성을 얻지 않고, 시정 백성들 사이로 돌아다니는가?”

그러자 조생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저는 세상 의원들이 제 의술을 믿고 남에게 교만하게 굴며 서너 번 청을 한 뒤에야 가보려 하는 버르장머리를 미워합니다. 또 그들이 가는 곳도 귀인의

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살려낸 사람이 적어도 수 천명은 될 것입니다. 제 나이 이제 마흔이니 다시 수 십년을 그렇게 한다면 만명을 살려내면 제 일도 끝이 날 것입니다”

홍양호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의술은 높으나 명성을 따르지 않고 낮은 곳에서 궁한 백성을 살리려는 진정한 의인이 조광일이었다.

